



급성 심근경색증

안영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가슴통증 30분 이상 지속땀 위험...빨리 응급실로

심장은 보통 성인 주먹만한 크기의 강한 근육으로 된 펌프로서 혈액을 전신에 순환시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거두어들이는 순환계의 중추기관이다. 이러한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여 심장의 기능을 유지하게 해주는 혈관이 심장동맥이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동맥이 갑작스럽게 완전히 막혀 심장 근육이 과산소되는 질환으로 심장동맥의 폐쇄가 시작된 지 20분 이내에 과산소가 심장 근육의 내막에서부터 시작돼 2~4시간후에는 심장 근육의 전 층으로 진행된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발생 직후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약 40%가 사망하며, 병원에 도착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사망률이 5~10%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의해서도 단일 질환 사망 원인 중 심장 질환이 3위를 나타냈고, 이 중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증상과 진단=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으로 환자들은 주로 '가슴을 짓누른다', '쥐어짜는 듯하다', '칼로 도려내는 듯하다', '빠개지는 것 같다' 등으로 표현하며 주로 가슴의 정중앙 또는 약간 좌측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이 증상은 30분 이상 지속되며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을 혀 밑에 투여해도 증상



안영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잦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병원 도착 전 40% 사망 고위험 질병

혈전용해요법·관상동맥중재술 등

복잡 질환자 합병증 없이 치료 가능

이 호전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슴 통증 이외에도 팔이나 턱 등으로의 방사통, 식은 땀, 상복부 불편감,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한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일반적으로 가슴 통증 등의 전형적인 증상과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그러므로 3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 통증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도착해야 한다.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가장 먼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며, 심전도상 특이적인 변화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혈액 검사를 통해 심장 특이적인 트로포닌(troponin)과 크레아티닌 키나아제(CK-MB) 등의 심근 효소를 확인해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 심근경색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보조적으로 시행했을 때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이 중 심장 초음파의 경우 심장의 전반적인 수축 기능을 확인하고 막힌 혈관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심장 전산화 단층촬영은 다른 비침습적 검사에서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이 애매하거나 저위험 환자에서 관상동맥질환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시행하며 관상동맥 경화반의 평가에도 유용한 검사이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혈관에 주사한 후 심장 근육의 생존여부를 평가하는 핵의학 검사도 급성 심근

- 급성 심근경색증 예방 생활수칙**
- ① 담배 반드시 끊기
 - ②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 ③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 충분히 섭취
 - ④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
 - 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 ⑥ 스트레스 줄이기
 - ⑦ 정기적인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체크
 - ⑧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꾸준히 치료하기
 - ⑨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 숙지

경색증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세한 확진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해야 하며, 이는 막힌 혈관을 찾아서 협착 정도 및 부위를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영술 후에 바로 관상동맥 중재술 치료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치료와 합병증=가장 중요한 것은 폐쇄된 관상동맥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재관류를 시켜주는가에 있다. 적정 시간 내에 폐쇄된 관상동맥을 재관류 시키는 치료는 심장 근육의 괴사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증상 발생 후 6시간이 지나기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심장 근육은 영구적으로 괴사하게 된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혈전용해요법, 관상동맥 중재술이라는 내과적 시술,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흉부외과적 수술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혈전용해요법은 혈전(피떡)을 녹이는 약물을 정맥을 통해서 주입해 막힌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방법으

로, 심근경색이 시작된 지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혈전용해제로 인해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뇌출혈 등의 병력이 있거나 현재 내부 출혈이 있는 사람 등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관상동맥 중재술은 대퇴동맥(사타구니)이나 요골동맥(손목)을 통해 작은 풍선이 달린 가느다란 관을 관상동맥까지 삽입한 후 막힌 부위에서 풍선을 팽창시켜 혈관을 넓혀주는 방법이다. 이 때, 혈관을 넓힌 부위의 재협착을 막기 위해 스텐트(금속 그물망)를 삽입하기도 한다. 막힌 혈관을 직접 확인하고 시술하기 때문에 효과가 확실하고, 다른 관상동맥의 상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관상동맥의 막힌 부위를 우회해 막힌 혈관의 아래 부위로 직접 혈액이 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최근 약물요법이나 관상동맥 중재술, 관상동맥 우회술 등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방법의 발달로 과거에는 치료할 수 없었던 복잡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고위험 환자들도 현재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대부분 적절한 치료 이후 발병 수주 이내에 직장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 후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상 발생 후 치료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 받은 심장 근육 손상의 정도이며 이에 따라 심부전, 부정맥, 반월판 폐쇄부전, 심막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스텐트 시술 후 스텐트 내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심실빈맥, 심실세동을 비롯해 치명적인 부정맥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문경래 조선대병원장 'U대회 성공개최' 감사패

조선대병원 문경래 <사진>병원장이 최근 2015광주세계U대회 성공개최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조선대병원은 이번 광주U대회를 위해 의료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문경래 병원장을 조선대병원 의료지원단장으로 최고의 의료진을 파견해 안전한 대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이번 광주U대회 기간 중 메르스라는 전염성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이동식

격리 장치(RXF-01)마련, 개막 전 사전 활동부터 폐막식에 이르는 기간 동안 메르스 예방활동, 선수촌 병원 의료인력 파견 등 다양한 건강지킴이 활동을 통해 광주지역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

문경래 병원장은 광주U대회 지정병원으로서 5개구 보건소, 전남대병원과 공동의 메르스 예방 캠페인 및 한국을 방문한 모든 선수단과 방문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활약을 통해 건강한 대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헌혈행사·헌혈증 전달 잇따라

어려운 형편의 환자들을 돕기 위한 뜻깊은 헌혈증 전달과 헌혈행사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모았다.

전남대 의과대학 손석준(사진 오른쪽) 교수는 최근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조용범)을 방문, 헌혈증 114매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병원내에서 지역작가들의 미술가부 전시회를 겸한 헌혈행사가 열렸다. 조형모세포 기증에 관한 홍보도 병행됐다.

전남대 학생들의 사랑나눔정신을 담은 것이어서 의미가 더 컸다. 손교수는 그동안 40여 차례의 헌혈을 통해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손교수는 "메르스 사태 여파로 전국적으로 헌혈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한다. 암환자들에게 완치희망을 주고 싶어, 헌혈증을 모아 기증했다"고 말했다.

이날 환자의 보호자와 병원직원들이 헌혈에 참여, 헌혈증 수납함을 병원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함평군립미술관의 인턴 큐레이터인 정경탁(35)씨의 기획이 계기가 됐다. 정씨는 고교시절부터 지금까지 200회의 헌혈을 한 주인공이다.

손교수와 아들의 헌혈증 수납함을 포함, 전남대 학생들의 사랑나눔정신을 담은 것이어서 의미가 더 컸다. 손교수는 그동안 40여 차례의 헌혈을 통해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다. 손교수는 "메르스 사태 여파로 전국적으로 헌혈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한다. 암환자들에게 완치희망을 주고 싶어, 헌혈증을 모아 기증했다"고 말했다.

조용범 원장은 "수혈용 혈액 확보에 큰 도움을 준 정성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환자중심의 인술로, 암치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두개저외과학회 '두개저 사체 해부코스' 개최

대한두개저외과학회(회장 정진·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최근 3일간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에서 '두개저 사체 해부코스'(Skull Base Cadaver Dissection Course)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32명의 신경외과·이비인후과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사체해부 코스'에서는 두개저 병변에 대한 강의

와 모든 수술들이 사체를 이용해 시행됐다. '두개저'란 뇌를 받치고 있는 두개골의 바닥부 부위를 말한다.

대한두개저외과학회 회장인 정진(사진) 교수는 "두개저 부위는 발생질환의 희귀성은 물론, 그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해 많은 경험 없이는 성공적인 수술을 하기 어렵다"며 "사체를 이용해 수술을 직접 재현해볼 수 있는 이번 강좌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수술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펜션·전원주택단지

캠핑장·미술관·체험학교·식당
야외결혼식장·연수원·요양원·찻집

최고장소!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토 9168평, 건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금성펜션단지 1분거리
- 죽녹원,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정도 상승 가능
도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귀농/귀촌 전남지역 1순위 지역
- 매매 - 감평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2억(법인체 인수 가능, 이전비 없음)

주인직매 H. 010-3605-5000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년후 20억이상 대출 가능